



제6장

경기도 풍물굿의 판제와 가락보 모범안



제6장 경기도 풍물굿의 판제와 가락보 모범안

다음은 여의도 옷다리 풍물 연구회 '신명পুর이'에서 작성한 옷다리 판제와 가락보이다. 경기도 풍물굿에 대해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여의도 옷다리 풍물 연구회는 95년 3월에 결성되었다. 이 연구회는 교사, 학생, 직장인들로 이루어진 풍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풍물들이 연희되고 연구되는 것과 달리 옷다리 풍물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계승, 연구하는 단체도 드문 실정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옷다리 풍물을 중심으로 전통 문화를 바르게 잇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자료는 그 동안 안성 풍물(김기복·이민조 선생님)과 평택 풍물(최은창 선생님)의 현지 전수를 바탕으로 95~96년 겨울 동안 임광식, 김용래, 이성호, 진명환, 이수영 선생님 등의 자문과 여러 비디오 자료 등을 통해 옷다리 풍물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1. 판제

차례

- 1) 입장
- 2) 돌림버꾸
- 3) 당산별림1
- 4) 길군악 칠채(오방진)
- 5) 당산별림2
- 6) 사통백이
- 7) 좌우치기
- 8) 짹짹이
- 9) 마당놀이(밀버꾸)

10) 개인놀이

11) 인사, 퇴장

1) 입장

▶ 점고(본래는 마을 입구에서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치던 것이다. 북 혼자서 쳐도 되고 북 끼리 맞추어 쳐도 된다) - 난타 - 잣은 가락(두 줄 또는 네 줄로 서서 있고 상쇠는 앞에서 치 배를 바라보며 어루며 친다)

▶ 삼채로 입장하여 원을 만든다(원을 만들기 전에 을자진과 태극진을 비롯한 여러 진의 모양으로 흥겹게 놀다가 원을 만들기도 한다) - 제자리 서서 안 • 밖으로 잣은 가락(양상) - 인사

▶ 점고와 난타는 악기의 점검과 치배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 인사굿은 바깥쪽에 한 번 한다(앞뒤로 두 번을 하기도 한다)

▶ 예전에는 경연 대회가 아니면 처음의 인사는 생략하기도 했다. 그 옛날에는 현재의 인사 굿 가락이 없이 난타에 인사를 하였다.

2) 돌림버꾸

아래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2-1)

▶ 짝쇠(잣은 가락)를 치다가 '그라 갱 갱 갱 갱 갱' 신호 가락에 버꾸들 안으로 들어가 쇠가락이 '갠 지갠 지'로 바뀌면 돌림버꾸를 한다(위와 반대로 사물이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다).

2-2)

▶ 삼채 짝쇠로 상쇠, 부쇠가 큰 원 안에서 논다.

▶ 때론 상쇠만 개인 쇠가락과 북상질(종이 부포 놀음)을 한다.

▶ 뒷 사물과 버꾸들도 자유롭게 논다 (상모는 허튼상과 찍엄상 등으로 실력발휘하여 흥겹



게 놀다가 통일된 동작을 취한다).

- ▶ 짝쇠가 끝나면 마당 삼채 신호 장단을 치며 마당 놀이로 간다

◎ 마당 놀이

- ▶ 신호 장단: 그랑 개갯 개갱 그라갯 개 (허튼상) 신호 장단은 상쇠마다 다르게 친다.

- ▶ 기본 장단: 갯 개갱 그라갯 개갱 그라 (허튼상)

→ 갯 그라갯 그라 (사사: 소고를 아래, 위로 친다)

→ 갯 그라갯 그라개개개갯

- ▶ 옆 걸음 양상으로 끝내거나 옆 걸음 양상으로 뛰다가 돌사위(연풍대)로 마무리 한다.

2-3)

- ▶ 삼채에서 빠른 삼채로 몰아가며 명석을 맡듯 힘차게 말아 옆 걸음 양상을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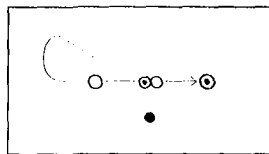
3) 당산벌림

3-1)

- ▶ 난타로 당산벌림.

- ▶ 상쇠와 수버꾸는 보통 대각선으로 선다.

- ▶ 상쇠는 보통 관객 쪽으로 선다. 사물과 버꾸는 힘차게 뛰며 외사를 돌린다.



◎ 상쇠놀음①

- ▶ 상쇠가 난타하여 큰 원으로 돌다가 버꾸 앞에서 돌사위와 좌우 짝임상으로 능력껏 논 뒤 뒤로 돌아서 북상을 세운 채 돌던 방향의 반대로 한 두 바퀴를 돈 뒤에 부쇠에게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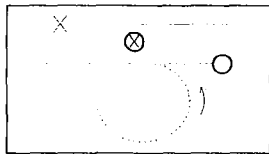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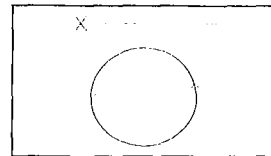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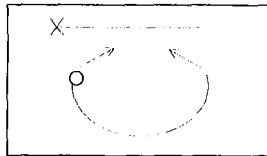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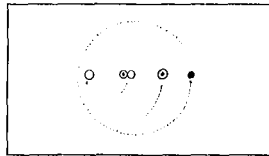
- ▶ 부쇠도 북상을 세운 뒤에 상쇠와 맞추어 짝어 내린다. 이때까지 사물과 버꾸들이 힘차게 난타를 쳐 줌으로써 상쇠의 놀음을 더욱 힘차고 판제의 맛을 한껏 살릴 수 있다.



3-3)

▶ 상쇠의 잣은 가락을 신호로 버꾸들은 뒤로 물러나며 반 원으로 둘러선다. (이때 버꾸는 소고만 치고 상모는 돌리지 않는다) 상쇠 높음(잣은가락), 좌우 짝엄상(네모잡이, 또는 사방치기라고도 함)과, 돌사위 등을 한 뒤에 부쇠에게 가서 엇어빼기 짝쇠(징은 치지 않는다)가락을 친다.

▶ 버꾸들은 엇어빼기 가락을 신호로 하여 반원 대형에서 원 대형으로 빠르게 만들어 다 같이 오른쪽으로 돈다. (돌 때에 외사, 양상을 친다. 이왕이면 양상 치고 가는 것이 박진감이 있고 좋다)



▶ 꼬리버꾸부터 끝 사물(끝 북) 앞에서 옆 걸음 양상을 치며 나란히 들어온다.(허튼상도 가능)

▶ 사물과 마주서서 허튼상을 친다.

상쇠의 그랑 갱 갱 개 갱~ 갱 갱 신호 가락을 4, 5회 친 뒤 ('갱' 표시에만 징이 들어간다, 신호 시에 상모는 양상+ 짝엄상) 버꾸들이 쉴 수 있는 가락을 낸다(갱 개개갱 개개). 이때 소고는 엇박치기를 하거나 아래 위를 치기도 한다.

▶ 마지막으로 잣은 가락에 버꾸들이 양상치며 최고조의 솟음버꾸를 친다. 상쇠는 돌사위를 하며 가락을 맺는 순간 돌던 방향의 반대 쪽으로 돌고나온 뒤, 칠채 머리 장단을 혼자서 친다(칠채 머리 장단을 안 치고 바로 들어가기도 함).

4) 길군악 칠채(오방진)

▶ 머리장단: 갱 갱 갱 갱 갱~갱 갱 개갱 갱 개갱 갱 갱 그라갱 갱 (경기 충청일원에서 전해진 가락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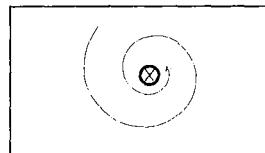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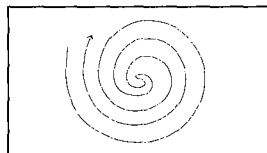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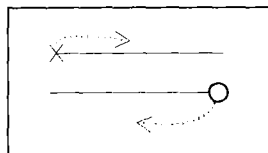
▶ 상쇠는 사물치배 뒤로 돌아 나간다

▶ 하지만 공연장이 좁을 땐 앞으로 나갈 수도 있다. 칠채로 말고 풀기를 5회(동·서·남·북·중앙의 오방) 하나, 시간이 없고 지루하게 느낄 때에는 3회 정도 말아 들어간다.

▶ 버꾸는 소고를 들고 가다가 끝 장단 갱에 한번 친다.(오른손 뒷짐이나 자유로운 몸짓으로 춤추며 댄다) 말고 들어갈 때만 버꾸들은 외사를 친다.

▶ 칠채 장단은 이동 시에는 원 박, 말아 들어갈 때에는 겹 박, 다 말아서 북아 들어가는 가락, 그리고 진을 풀 때는 첫 한 장단에 병어리 칠채로 풀기도 한다.

▶ 풀고 나올 때 버꾸(띠쟁이 - 남사당 은어임)는 푸는 가락 중간 쯤에 돌던 방향과 반대로 크게 원을 그려 사물이 빠져나갈 틈을 내준다. (또는 버꾸들이 사물을 따라 가운데로 들어갔다 가 나올 수도 있다 -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버꾸들이 판 속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흠이 있다)



▶ 마지막 오방진의 명석을 만 뒤에 다 같이 잣은 가락에 옆 걸음 양상을 친다.(요즈음에는 외사를 많이 하나 과히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다) 또한 능력이 되면 옆 걸음 양상을 하다가 두루 걸이로 돌사위를 하면 더욱 멋진 판이 될 수 있다. 이때 상쇠는 가운데서 돌사위를 한다.

①난타 또는 엮어빼기 짝쇠(첫 장단은 상쇠만 친다)로 명석을 풀어 당산별림을 만들거나

②삼채로 풀어 원을 만들고 마당 놀이로 다시 한 번 가기도 한다.



5) 당산벌림2

◎ 상쇠놀음③

5-1) 무동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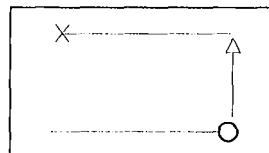
▶ 상쇠는 삼채로 무동을 끌고 나와 짝금놀이를 한다. (달고 나오기 전과 달고 나오면서 상쇠의 채발림이 있다)

▶ → 짝짝이(무동 놀리는 장단) → 풍년 가락 → 굿거리 춤

→ 무동 춤(갱 그라갱 갱 그라갱

갱 그라갱 그라갱 그라갱

개개개 개갱 갱 그라갱 개개개 개갱 갱 그라갱)으로 치다가 '개개개
개갱 갱 그라갱' 을 되풀이 한다. (임광식 선생님)



◎ 짝금놀이

▶ 무동이 없으면 버꾸들이 짝금놀이를 대신 할 수도 있다.

▶ 상쇠는 삼채 가락을 낸 뒤 발림을 하며 버꾸 앞으로 나아간다.

▶ 가락 신호를 주면 버꾸들은 몇 걸음 앞으로 나와 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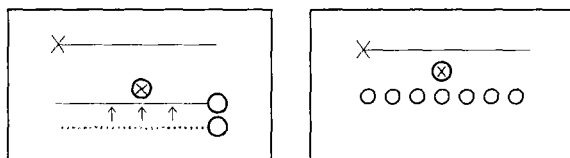
▶ 짝금놀이를 한다. (세 동작으로 오른손-왼손-양손의 순이며 ① 한 동작의 장단을 하나, 두-을, 세-엿, 네-엿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으로 장단 수를 맞추어 추기도 한다-이수영 선생님) 동작 사이 사이에 허튼상을 치며, ② 상쇠가락을 멈추면 동작에 들어간다. ①이나 ②의 경우로 동작을 바꾼다. (물론 부쇠 이하 치배들은 계속해서 가락을 쳐 준다.)

▶ 상쇠의 신호 가락: 개갱 개갱 갱 갓

▶ 상쇠도 쇠가락 칠 때는 북상놀음을 멋있게 한다.

▶ 버꾸는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나 물체가 위로 솟구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지막 양손 짚금놀이를 할 때 상쇠의 종이 북상이 뒤에서 앞으로 세운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움직여 주며 버꾸와 함께 짚금놀이 동작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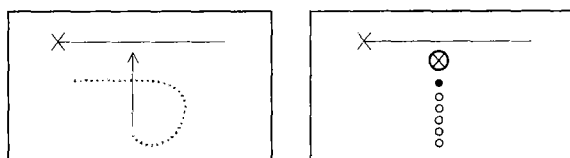


5-2) 외줄백이

▶다 같이 일어나서 외줄백이(한 줄)를 한다. 상쇠가 버꾸들을 달고 나온다, 북상은 고정 시킨 채로 발림을 한다. (또는 북상질을 해도 된다)

▶쇠가락을 여유있게 '갠 지갠 지' (쌍줄백이도 같음)하며 달고 나오다 앉힌다.(임광식 선생님) 덩덕궁이보다 빠르게 '갠 그라개갠' 을 치며 버꾸들을 달고 나오기도 한다. (안성)

▶버꾸들은 깨금발로 여유있고 가볍게 뛰며 나온다



※ 보통은 외줄백이 → 좌우치기 → 쌍줄백이로 하나, 좌우치기 → 외줄백이 → 쌍줄백이로 하기도 한다(안성). 판의 순서를 짜는 것은 상쇠와 수버꾸의 판단에 따른다.

5-3) (버꾸) 좌우치기

▶외줄백이의 한 줄에서 빠르게 원을 만들기 위해 앞의 버꾸들은 앞 사람을 무조건 따라 가지 않고 능동적으로 원 대형을 그릴 수 있도록 좌우치기의 원대형을 만들어 간다. 다른 원대형을 만들 때에도 같은 원리로 이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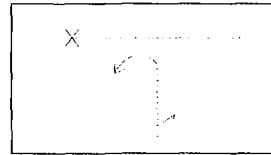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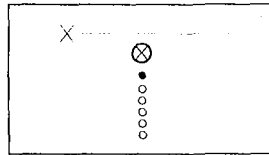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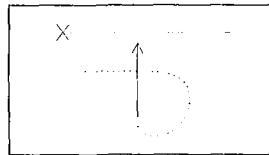
▶좌우치기 가락 : 갠 개갠 그라개갠 개갠 그라개갠 개갠 그라개갠 갠 가락에 맞추어 옆으로 뛰



며 원을 만든다

▶오른쪽-왼쪽-오른쪽 순으로 옆걸음 치며 외사(상모 돌리는 방향도 오른쪽 왼쪽 오른쪽의 순서)로 돌린 뒤, 나비상을 치며 '뒤로-앞으로'의 순서로 3회 한다.(첫 번째 장단의 나비상을 칠 때에는 뒤로 가서 가운데의 공터를 만들어 놓고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때론 제 자리에 서서 나비상을 친 뒤에 중앙으로 살짝 들어가기도 한다).

▶수 버꾸와 끝 버꾸 사이를 갈라서 뒤집는것(가운데 버꾸들은 있던 자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달려간다)으로써 빠른 동작으로 다시 원을 만들어야 박진감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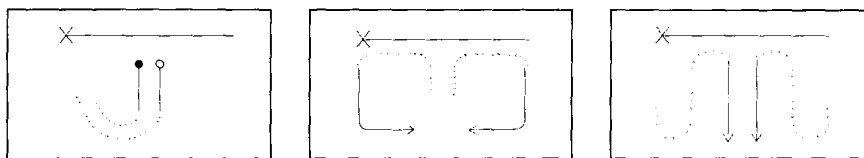
▶다시 원이 되면 좌우치기 가락으로 원(수 버꾸의 진행 방향과 같음-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오-원 순으로 옆걸음 치며 돌고 나비상으로 '뒤로-앞으로'의 순서로 3회 한다.(3회째 뒤로 나올 때는 외사에 돌아위로 나온다)

5-4) 쌍줄백이

▶중 버꾸가 뛰어 나와 두 줄(수 버꾸 줄과 중 버꾸 줄)을 만든다(안성). 또는 외줄백이에서 상 버꾸, 부 버꾸의 순서로 하나씩 나누어 서는 나눔진으로 두 줄을 만들기도 한다(남사당). 버꾸와 상쇠의 동작은 외줄백이와 같다

▶수 버꾸 줄-중 버꾸 줄의 순서로 각각 두 번씩 앉았다 일어섬.(처음에는 수 버꾸 줄만 앉고 부 버꾸 줄은 서 있다. 다음에는 부 버꾸 줄이 앉을 때 수 버꾸 줄은 일어선다) 이를 두 번 되풀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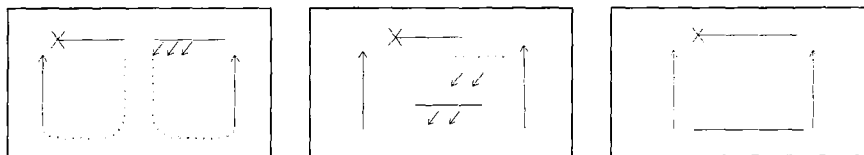
▶번갈아 앉는 모습이 마치 절구 찡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이를 절구 버꾸 또는 절구멍이 버꾸라고도 불리움.(이를 밀버꾸라 부른다. 보통 마지막 부분의 버꾸들이 밀고 당기는 모양을 밀버꾸라 하나 여기서는 버꾸들이 앉고 서 있는 모습이 보리와 밀의 모양을 나타낸다고 하여 밀버꾸라 한다- 이수영 선생님)



▶버꾸가 진을 짜는 사이 사물의 반이 버꾸 뒤를 따라서 맞은 편으로 간다.[무동(피조리)이 있으면 따로 갈 필요가 없다]

※ 남사당 은어로 무동을 피조리라 함

▶사각형의 진을 만들어 사통백이로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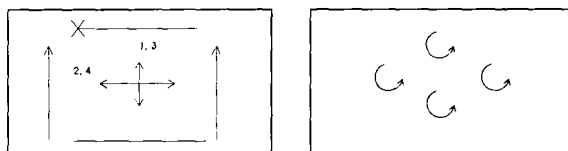
6) 사통백이

▶사물 끼리-버꾸 끼리 가새치기의 순서로 두 번 비껴 지나간다(써레질, 가새치기). 힘차게 뛰기도 하고 여유있게 걷기도 한다(단체마다 다르게 할 수 있다). 버꾸의 두 줄이 만날 때는 만나는 지점에서 다 함께 찍엄상을 하기도 한다.

▶상쇠의 '개갱 개갱 갱 갱' 신호 뒤에 다 함께 돌아선다.(두 줄은 돌아서고 나머지 두 줄은 나아가는 모습). 네 개의 작은 원을 만들어 돌며 상쇠줄은 최소한 두 바퀴를 돈 뒤에 진을 풀고 부쇠줄로 간다.

▶버꾸들은 발차고 돌기(제기차기)를 하며 멋과 흥을 돋구어 신명나게 논다.

▶작은 원을 순서대로 풀어 큰 원을 만든다.





ㄱ 좌우치기

7-1) 합동 좌우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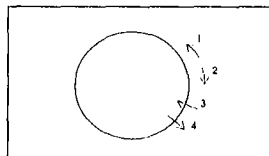
▶큰 원을 만들어 제 자리에 서서 덩덕궁이(삼채) 가락을 뗏는다. 잣은 가락에 양상을 짧게 치고 좌우치기를 한다.

▶머리 장단 : 갱 갱 개갱 그라갱 개

▶본 장단 : 갱 갱 개갱 그라갱 개 (× 2)

갱 개개개개갱 갱

▶오-원-앞-뒤로 각기 세 걸음씩 걸으며 상모는 허튼상을 친다. (마지막에 덩덕궁이 두 장단을 치며 모든 치배 제자리 돌다가 네줄을 만들기도 한다 - 안성)



7-2) 네 줄 좌우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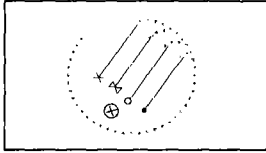
▶난타로 상쇠 앞에 빠르고 질서 있게 움직여 네 줄로 선다. (상쇠를 마주 보고 선 상태의 네줄이다. 이때 절구벽구 가락으로 몇 걸음 나오기도 한다 - 안성)

▶잣은 가락에 양상을 짧게 치고 좌우치기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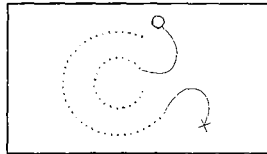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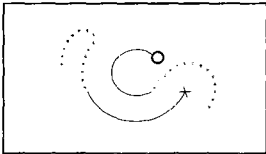
▶오-원-뒤-앞으로 (평택, 안성) 각기 세 걸음씩 [상쇠의 오-원-앞-뒤에 맞추어 네 줄의 치배들이 원-오-뒤-앞 (남사당, 임광식 선생님) 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 덩덕궁이 머리 장단 두 장단 (뒤-한 장단, 앞-한 장단 또는 제 자리에서 두 장단을 어루며 치기도 한다 : 나비상을 치거나 안칠 수도 있다)을 친 뒤 덩덕궁이로 진을 본다.

▶네 줄을 풀 때에는 앞 줄에 있는 상쇠(부쇠가 앞에 선) 줄과 수 버꾸 줄이 먼저 뒤로 향하여 뛰어가며 풀고 그 뒤를 나머지(가운데) 줄이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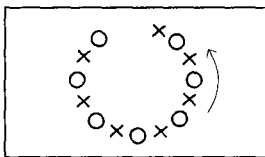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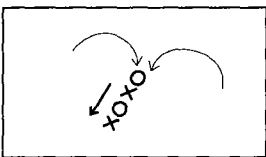
▶사물과 버꾸 두 줄로 나뉘어 진풀이를 한다(그 보기로 사물과 버꾸가 안, 밖을 바꾸어 돌려 놀 수도 있다 - 안성).



▶찍찍이 대형을 설 때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선다.

① 한 줄로 만들어 바로 찍찍이로 간대[앞에서 찍찍이굿(피조리 놀리는 것)을 놀리지 않은 경우]

②사물, 버꾸를 하나씩 섞어서 찍찍이 대형으로 간다. (상쇠 - 수버꾸 - 부쇠 - 부버꾸)



8) 찍찍이

▶큰 원을 만들어 선다.

▶7-2) ②의 경우 도둑잡이를 할 수 있다.



※도둑잡이는

- ① 양상을 치다가 상쇠의 신호를 듣고 버꾸들만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간다. (그 모양이 도둑을 잡아내는 형상인 듯하다)

신호 : 그랑 갱 갱 갱 갱~ 갱 갱 (× 2)

신호 후 다시 양상을 친다

- ② 도둑잡이는 십자진 후에 한 줄 또는 두 줄로도 한다. (대전 중앙농악회 송순갑 선생님 판제)

▶ 양상을 짧게 치고 짹짹이 가락을 세 번 정도 친다.

▶ 짹짹이 가락에 버꾸는 걸어가며 새미춤을 춘다. (나비상을 치기도 한다 - 안성)

▶ 짹짹이 가락 다음에 풍년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춘다. [짹짹이에서 풍년가락(굿거리배)으로 넘길 때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그라갯을 친다.]

▶ 풍년 가락을 몇 장단 친 뒤에 넘기는 가락[장고 : 갱(뎡) 갱(뎡) 옷 따따 에 따라 육채(상쇠 먼저 한 장단 치고 나머지 치배들 따라 친다)를 치며 두 걸음씩 안, 밖으로 보며 춤춘다. 빨라지면 한 걸음씩 나아가고, 가락이 잦아지면(구음:갠갠 그 또는 다다그) 뒷 걸음 치며 느린 일사를 친다. (외사를 치기도 한다 - 남사당)

9) 마당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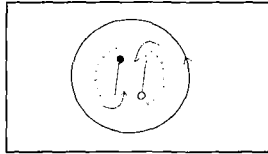
▶ 마당놀이 가락(잣은 가락의 머리 장단이라고도 함- 이수영 선생님)에 버꾸 나와 선다. (앞에 나온 2, 돌림버꾸 때와 같다) [버꾸놀이의 좌우치기(오른쪽 왼쪽 오른쪽 앞 뒤 3회)를 반만 하고 마당놀이를 하기도 한다 - 옛 남사당 경복궁 필름]

→ 잣은 가락 양상 → 엮어빼기 → 쉽가락 → 양상 치며 밀버꾸(미지기 모양의 버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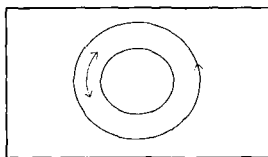
▶ 밀버꾸 대형으로 서는 방법 (밀버꾸 시 보통 왼 발 나가고 오른 발 따라붙는 형식이다)

- ① 돌다가 수 버꾸 신호에 바로 마주 봄

② 옆으로 나란히 들어옴



③ 방향을 바꾸어 돌다가 밀버꾸 (이돌천 선생님)



- ④ 쉬는 가락(갠 개개)을 칠 때 미리 마주 보고 서서 잣은 가락 신호로 밀버꾸/
밀버꾸를 몇 번 하다가 제 자리 솟음버꾸를 하며 끝내기도 한다 → 난타로 당산 벌림

10) 개인 놀이

- ▶ 상쇠 놀이, 따버꾸 놀이, 장구 놀이, 버나 돌리기, 무동 놀이, 열두발 등으로 짤 수 있다.

㉮ 인사/퇴장

- ▶ 덩덕궁이 → 원을 만들어 서서 안, 밖으로 잣은 가락에 양상 짤게 치고 → 인사 → 퇴장 또는 뒷풀이, 난장

2. 가락보 모범안

아래의 가락보는 기초적인 수준의 가락을 넣은 것이고, 본래는 지역과 단체 그리고 치배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친다.

'그라'는 '개'로 '기닥'은 '따'로 쳐도 좋다.

1) 삼채

삼채는 그 가락이 가장 자유롭고 다양하게 연주되는 성격의 가락이다. 뒷 사물과 버꾸들이 분명하게 원박을 들을 수 있도록 쳐야 하며 개인적인 가락의 다양함과 멋을 갖추어야 한다.

쇠:

개		개	개		개	개	그라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그라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그라	개	개	
개	개		지개	개		지개	그라	개	개	

징:

●			●			●				
---	--	--	---	--	--	---	--	--	--	--

(● 표시는 본래는 징으로 치나 생략도 가능)

장고:

딩		딩	궁	따	따	●	따	●	●	따	따
---	--	---	---	---	---	---	---	---	---	---	---

(● 은 넘겨 친다)

북:

등		두	등		두	등		두	등		
등		두	등		두	등		등		등	

2) 마당 삼채

마당 삼채는 마당으로 버꾸들을 불러 들여 놀 때 쓰이는 가락이다. (이를 잦은 가락 머리 장단이라고도 봄 - 이수영 선생님)

첫째 가락

쇠:

머리 장단: 사람마다 다양하게 친다.

그	랑		개	갓		개	갱		그	라	갓		개
---	---	--	---	---	--	---	---	--	---	---	---	--	---

본 장단

장고: ① 궁 따 구 궁 따 따 **궁** 따 **궁** 따 따

② 궁 따 더 궁 따 따 **궁** 따 **더** 궁 따 따

북:

등		두	등		두	등		두	등		두
---	--	---	---	--	---	---	--	---	---	--	---

둘째 가락

쇠:

갱		그	라	갱		그	라	갱		그	라	갱		그	라
---	--	---	---	---	--	---	---	---	--	---	---	---	--	---	---

징:

●						●								
---	--	--	--	--	--	---	--	--	--	--	--	--	--	--

장고:

궁	따	따	궁	따	따	궁	따	따	궁	따	따
---	---	---	----------	---	---	---	---	---	----------	---	---

북:

등		두	등		두	등		두	등		두
---	--	---	---	--	---	---	--	---	----------	--	---

맺음 가락

쇠:

갱		그	라	갱		그	라	갱		그	라	갱		그	라
갱		그	라	갱		그	라	개	개	개	개	갱			



3) 잣은가락

쇠 : 잣은가락의 쇠소리는 '달 도박 고별 도박 고'의 구음으로 들리는 듯 하다.

머리 장단

그	랑		갠		갠		갯	
갠		갠		갠		갯		
갠				갠				
갠				갠				
갠	지	갠		갠	지	갠		

본 장단

갠	지	갯	지	갠	지	갯	지
---	---	---	---	---	---	---	---

징 :

●				●			
---	--	--	--	---	--	--	--

장고 :

- ①

궁	따	궁	기	궁	따	궁	기
---	---	---	---	---	---	---	---

 ②

텅	따	궁	기	텅	따	궁	기
---	---	---	---	---	---	---	---

 ('따따부따' 라고도 한다)

북 :

둥		두		둥		두	
---	--	---	--	---	--	---	--

4) 얹어빼기

잣은 가락을 치다가 '그랑 갠 갠 갯' 을 가운데 연결음으로 넣어친다.

쇠 : ①~④가락과 압수 가락을 바꾸어 가며 다양하게 연주한다.

- ①

갠		개	갠		개	갠		갠		그	라	갠		개	갠	
---	--	---	---	--	---	---	--	---	--	---	---	---	--	---	---	--

 ②

갠		개	갠		개	갠		개	개	개	갠		개	갠		
---	--	---	---	--	---	---	--	---	---	---	---	--	---	---	--	--

 ③

갠		개	갠		개	갠		웃		그	라	갠		개	갠	
---	--	---	---	--	---	---	--	---	--	---	---	---	--	---	---	--

 ④

그	라		개	갠		개	갠		개	개	개	갠		개	갠	
---	---	--	---	---	--	---	---	--	---	---	---	---	--	---	---	--

징:

●		●						●	●					
---	--	---	--	--	--	--	--	---	---	--	--	--	--	--

장고: 쇠가락처럼 ①, ②가락을 섞어 화려하게 친다.

①

덩		따	따	궁	따	궁		따	구	궁	따	궁	따	궁
---	--	---	---	---	---	---	--	---	---	---	---	---	---	---

②

덩		따	따	궁	따	궁		더	궁	따	따	궁	따	궁
---	--	---	---	---	---	---	--	---	---	---	---	---	---	---

③

덩	기	닥	따	궁	따	궁		덩	기	덩	따	궁	따	궁
---	---	---	---	---	---	---	--	---	---	---	---	---	---	---

북: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두
---	--	---	--	---	--	---	--	---	--	---	--	---	--	---

5) 쉬는가락

엷어빼기를 치다가 그랑 갠 갠 갠 가운데 연결음으로 넣어친다.

첫째가락

쇠: ①

갠		개	개	갠		개	개
---	--	---	---	---	--	---	---

②

은	지	개	갠	은	지	개	갠
---	---	---	---	---	---	---	---

징:

●							
---	--	--	--	--	--	--	--

장고: ①

궁	따	궁	기	궁	따	궁	기
---	---	---	---	---	---	---	---

②

궁	따	덩	따	궁	따	덩	따
---	---	---	---	---	---	---	---

③

덩		따	따	궁	따	궁	
---	--	---	---	---	---	---	--

북:

둥		두		둥		두	
---	--	---	--	---	--	---	--

둘째가락

쇠:

딱		다	다	딱		다	다
---	--	---	---	---	--	---	---



징 : 징은 치지 않는다.

장고와 북은 첫째 가락과 같으나 쇠는 엇박으로 들어간다.

딱딱다 딱딱다를 치다가 그랑 갠 갠 갓을 가운데 연결음으로 넣어친 뒤 다시 잣은 가락(갠 지 갓지)을 친다.

6) 길군악 칠채

쇠:

머리 장단 : 일부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가락이다.

간		간			
간		간			
간				간	
간		개	간	간	개
간		간	그라	간	갯

[illegible]

첫째 장단(서너 번 되풀이한 뒤 신호 장단을 치고 둘째 장단으로 간다. ① ② 가운데 하나를 친다)

징:

●								
---	--	--	--	--	--	--	--	--

북:

둥		두	둥		두	둥		두	둥		
---	--	---	---	--	---	---	--	---	---	--	--

 ×1

둥			딱		딱		딱		딱		
---	--	--	---	--	---	--	---	--	---	--	--

 ×2

[illegible]

징:

●			●			●			●	
---	--	--	---	--	--	---	--	--	---	--

$$\begin{array}{l} \text{쇠 : } \boxed{\text{갠}} \boxed{\phantom{\text{갠}}} \boxed{\phantom{\text{갠}}} \boxed{\text{갯}} \boxed{\phantom{\text{갠}}} \boxed{\text{개}} \boxed{\text{갠}} \boxed{\phantom{\text{갠}}} \boxed{\text{지갠}} \boxed{\text{갯}} \boxed{\phantom{\text{갠}}} \boxed{\text{개}} \times 2 \\ \boxed{\text{개}} \boxed{\text{개}} \boxed{\text{개}} \boxed{\text{개}} \boxed{\text{개}} \dots \boxed{\text{웃}} \boxed{\text{개}} \boxed{\text{갠}} \boxed{\text{갠}} \boxed{\text{갠}} \boxed{\text{갠}} \boxed{\text{갠}} \boxed{\text{개}} \boxed{\text{갠}} \times 1 \end{array}$$

징: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1

장고:

덩				따		따	덩		기	따		따
---	--	--	--	---	--	---	---	--	---	---	--	---

 ×2

터	터	터	터	...	덩	따	궁	덩	덩	개	궁	따	궁
---	---	---	---	-----	---	---	---	---	---	---	---	---	---

 ×1

북:

둥				딱		딱	둥		따	딱		딱
---	--	--	--	---	--	---	---	--	---	---	--	---

 ×2

두	두	두	두	...	둥	두	둥	둥	둥	두	둥	두	둥
---	---	---	---	-----	---	---	---	---	---	---	---	---	---

 ×1

맏음(둘째 장단 끝에 바로 이어서 친다. 요즘에는 맏는 가락 없이 바로 다음 가락으로 넘어간다)

쇠:

갠		갠					
---	--	---	--	--	--	--	--

징:

●							
---	--	--	--	--	--	--	--

장고:

덩		덩		웃		따	닥
---	--	---	--	---	--	---	---

북:

둥		둥					
---	--	---	--	--	--	--	--

9) 버꾸 좌우치기

쇠: ①이나 ②를 친다.

- ①

갠		개	갠		그라	갠		개	갠		그라
개	갠		개	갠		갠		갠			
- ②

갠		개	갠		그라	갠		개	갠		그라
갠		개	갠		그라	갠		갠			

징:

●						●					
---	--	--	--	--	--	---	--	--	--	--	--



장고 :

텅		따	궁	따		텅		따	궁	따	
텅		따	궁	따		더	궁		텅		

북 :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두	두	둥		둥		

10) 좌우치기 (협동, 네줄)

머리 장단 : 쇠 혼자 친다.

갠			갯		개	갠		그라	갯		개
---	--	--	---	--	---	---	--	----	---	--	---

쇠 : ' ' 박에 움직이는 방향으로 한 발씩 옮긴다.

갠			갯		개	갠		그라	갯		개	×2
갠	(갠)		개	개	개	갠			갯			×1

징 :

●											
---	--	--	--	--	--	--	--	--	--	--	--

장고 :

텅			텅		기	궁		따	궁		기
텅			텅		따	궁		기	궁		

북 :

둥			둥		두	둥		두	둥		
---	--	--	---	--	---	---	--	---	---	--	--

11) 무동춤가락

쇠 :

갠		그라	개	갠		갠		그라	개	갠	
갠		그라	갠		그라	갠		그라	개	갠	
개	개	개	갠		개	갠		그라	개	갠	×2

징:

●											
---	--	--	--	--	--	--	--	--	--	--	--

장고:

덩		파	궁	파		덩		파	궁	파	
덩		파	덩		파	덩		파	궁	파	
터	터	터	덩		파	덩		파	궁	파	

 ×2

북:

둥		두	둥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두	두	두	둥		두	둥		두	둥	

 ×2

※참고

1. 쇠가락 - 이수영 선생님

〈굿거리〉

그라다당 당	당 당	당 그라 당	당 춤	
당 당그라다다	당 당그라다다	당 당그라다다	당 당 춤	
다다당그라다다	다다당그라다다	다다당그라다다	당 당 춤	
그라다당 그라다	당 그라다당	그라 당당 그라	당 당 춤	
당 그랑	그랑 그라다당	당 그라당 그라	당 당 춤	
다다당그라다다	다다당그라다다	다다당그라다다	다다당그라다다	
다다당그라당그라	당그라당그라당	다당 당 그라	당 당 춤	
당 그당	그당 그라 다당	당 그라당 그라	당 당 춤	
당 그당 그라다	웃 그라 다다당	그라당 그라당	다다닷 당	×2
웃그라다다당	웃 그라 다다당	그라당 그라당	그라다닷 당	×2
당 그당 그라다	웃 그라 다다당	그라당 그라당	다다닷 당	×2
웃그라당 당	웃 그라 당 당	웃그라당 당	웃그라당 당	
그라 다 다 당	그라 다다다당	그라다다다당	그라 다다다당	
당 그당 그당	그당 그라 다당	당 그당 그당	그당 그라다당	
다당 그다당	그다당 그다당	그다당 그다당	그다당 그다당	
당 그당 그라다	웃 그라 다다당	그라당 그라당	그라다닷 당	×2
그라다당	그라다당	그라다당	그라다당	
그라다당 그라다	당 그라다당	그라당 그라당	그라당 그라당	×2
그라다다다다	웃그라다다당	다당 당 나	당 다다당	
그라당 당 그라 당 당 춤				



〈삼채〉

그당	나	당	나	당	그라	당	나	
당	다	당	그라	당	나	당	그라	×...
당	그라	당	그라	당	그라	당	그라	×...
당	그라	당	그라	다	다	다	당	
당	다	당	나	당	그라	다	당	
당	당		다	다	당	다	당	
다	당		당	다	당	다	당	
그라	다	당		그라	다	당		
다	당		당	다	당	다	당	
다	당	그	다	당		다	당	×2
그라	다	다		그라	다	다	당	
그라	다	당		그라	다	당		
그라	당	당	다	당	그라	다	당	
다	당	그	다	당		다	당	×2
그라	다	다		그라	다	다	당	×2
다	당	다	그	다	당	다	그	×2
다	당	다	그	다	당	다	그	×2
당	그	다		당	그	다	당	
다	당	당	다	당	다	다	당	
당	다	당	다	당	다	다	당	
그	다	당		다	그	다	당	
다	당	당	다	당	다	다	당	
다	당	그	다	당		다	당	×2
그	다	당		그	다	당		
다	그	다		다	그	다	당	
다	당		다	다	다	다	당	

잡은 가락

당	당	당	깃	
당	당	그	당	그
당	그	당	그	당

×...

엮어빼기

당	다	당	그	당	그
당	그	당	다	당	그

×...

쉬는 가락

당 다다당 다다 ×...

잣은 가락

당	그	닷	그	당	그	닷	그
당		당		다	다	당	
당				다	다	당	
당							

×...

2. 판제

- ① 입장 : 점고 - 난타 - 잣은 가락(짧게) - 삼채로 을자진 원진 그리고 가락 맺고 - 양상 (안, 밖) - 인사
- ② 돌림버꾸 : 엷어빼기 짝쇠 - 잣은 가락(버꾸 나와서 돌림버꾸)
- ③ 길군악 칠채 : 오방진(마지막 진 마지막 장단은 빠른 원박) - 옆뛰기 - 마당 놀이
- ④ 당산 벌림 : ㉠네걸음 양상(난타 후 바로 걸어나감) ㉡빠른삼채 ㉢돌림버꾸 ㉣찍금놀이
㉤외줄백이 ㉥양 좌우치기(버꾸 좌우치기) ㉦밀버꾸 - 밀과 보리의 키 차이
에 비유 (쌍줄백이, 절구버꾸)
- ⑤ 사통백이 - 작은 원 4개 (제기차기 : 차고도는 동작)
- ⑥ 원 좌우치기(합동 좌우치기) / 좌우치기(네줄 좌우치기)
- ⑦ 마당 놀이
- ⑧ 당산 벌림 - 개인 놀이 - 맺음